

# California State University, Fresno 수학보고서

국제통상학과

20912685

장윤원

이곳에 오기 전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작년 2학기는 이곳에 오기위한 준비 때문에 약간은 분주한 학기였습니다. 오기 전 우리를 담당하시는 Coordinator인 Tatiyana Ryabova 와 수습 통의 메일을 주고받으며 제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했습니다. 우선 이곳에 합법적으로 지내기 위해서는 최소 12학점을 들어야 하며 그 중 9학점은 business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Accounting (ACCT 4A), International Business (BA 174), Finance (FIN30), 그리고 Microeconomics (ECON 40)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와 가장 다른 점은 출석 시스템입니다. BA 174의 경우에는 교수님이 출석 표를 주시면 학생들이 차례로 직접 자신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합니다. FIN30 와 ECON 40의 경우에는 체크를 할 때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가장 특이한 방법으로 출석을 체크하는 수업은 ACCT 4A입니다. I-Clicker라는 것을 구내서점인 Kennel book store에서 약 \$30에 구입을 해야 합니다. 수업시간마다 약 5문제정도 풀게 되는데 그때마다 I-Clicker를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답의 버튼을 누르면 푸는 문제마다 맞추면 2포인트 못 맞춰도 풀면 1포인트 정도 얻게 됩니다. 즉 그 날 문제를 풀었으면 출석한 거고 문제를 못 풀었으면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됩니다. 이 수업의 교수님의 경우 3번의 session을 가르치시는데 자신이 가고 싶은 시간대에 가서 그냥 수업을 들으면 되는 편리함도 있습니다.

숙제와 시험의 경우 과목마다 다 다른데 어떤 과목은 시험을 2번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과목은 6번의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2번을 치는 과목은 매 시험마다 시험범위가 넓습니다. 그와 반대로 6번의 시험을 치는 과목의 경우 시험을 치르는 단원의 양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시험을 치러 갈 때 학생증과 필기구만 가져가면 되지만 이곳의 경우에는 답안지를 직접 사서 가져야 합니다. Kennel book store에 가서 Scantron이라는 것을 사서 가져야합니다. 과목마다 요구하는 Scantron이 다르기 때문에 첫 수업에 꼭 참여하셔서 syllabus를 받으셔서 교수님이 요구하시는 Scantron의 번호를 확인하셔서 그것에 맞춰서 사야합니다. 숙제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양이 훨씬 많습니다. 에세이를 써가야 하는 과목도 있고 모의투자를 해서 약 3개월 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숙제도 있고 책 뒤에 있는 CD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숙제도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숙제는 ACCT 4A 숙제인데, 저희 교수님의 경우 Wiley라는 홈페이지에 자신의 책 뒤에 있는 번호를 등록해서 가입을 한 후 컴퓨터를 이용해 매번 정해져있는 기간 안에 숙제를 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는 Pardiso라는 홈페이지에 가입을 해서 \$21정도 결제하고 숙제를 해야 하는 것도 있었는데 교수님께 교환학생이라고 말씀드린 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리면 따로 메일을 통해 파일을 보내주십니다.

수업을 하다가 모르는 질문이 생기면 수업 중에 손을 들고 있으면 교수님께서 말하라고 하시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소규모의 수업들이어서 학생들이 교수님께 1대 1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가 우리의 secondary language라는 것을 학생들과 교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말을 더듬거나 제대로 의사전달을 못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의사전달이 될 때까지 그리고 제대로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해 주십니다. 만약 그게 부담이 되시면 첫 날에 받는 syllabus에 보면 교수님들의 이메일 주소와 office hour가 있으므로 이메일로 질문을 하셔도 되고 교수님의 office에 찾아가셔서 여쭙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확인 안하시는 교수님들도 간혹 계시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 수업이 끝나고 질문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한 교수님은 제가 수업이 끝나고 질문을 하려고 갔더니 지금은 휴식을 가져야 하니 office hour에 자신의 office에 찾아오라는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교수님들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이곳에서 인턴쉽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학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인턴쉽은 3학점을 받는 과목이며 아직 저도 해보지는 않아서 무보수인지는 잘 모르지만 돈을 벌고자 하는 일은 아니기에 다음 학기에 해 볼 계획입니다. 인턴쉽을 하고자 할 경우 Tatiyana Ryabova에게 찾아가서 blue form을 받아서 작성 후 성적과 학교에서의 태도를 평가한 뒤 인턴쉽 담당자분과 인터뷰를 거친 후 최종 인턴쉽을 할 수 있다는 승인이 되면 인턴쉽을 하게 될 기업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해야 최종 결정이 됩니다. 조금은 까다로워 보이기도 하고 영어로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 됩니다.

수업 외에도 재미있는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 Emerging Leaders Retreat에 몇 주 전에 참가했습니다. 조금 힘들긴 했지만 뜻 깊은 프로그램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 학기마다 하며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한 뒤 뽑히면 메일과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가 옵니다. 총 3일간 나가는데 2일은 이론을 들으며 리더십에 대해 배우는데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아무래도 참여하는 한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국인이라 어울려 놀 수 있었습니다. 이틀날에는 잔디밭에 나가 게임을 하고 놀면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방법도 배우고 즐거운 시간 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그룹별로 자원봉사를 나가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미국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처음에 와서 조금 두렵기도 했던 미국 생활이 어느덧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 몇 개월 밖에 지내지 않아서 엄청난 도움을 드리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보고서를 보고 미국에 오시게 된다면 한국어가 아닌 영어라고 소심하게 뒤에서 숨어 있지 마시고 용기를 가져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도 해보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 해보시고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즐기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기회를 잡고 기회가 있어야 더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보고서이지만 궁금한 점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대답해드리겠습니다.